

3.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요한복음 1장 43-51절.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 함석헌 -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손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땀 뻘 배 가라앉을 때 구멍 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소'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한때 '너 하나 있스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손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소.'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살쥔한 슈족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가운데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에서 빌립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

해 보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일까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생각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같이 그 길을 갈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나다나엘이 있었던 곳이 정확히 어떤 지명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그의 시간을 내어 의지적으로 친구를 찾아갈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불현 듯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일들을 놓고 홀로 지나야 하는 말년에 함께 할 친구가 있는가, 아니면 쓸쓸한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때로 그런 외로움 고독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 .”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는 배우자들이 있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 .”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원하든지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냥 그런 물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뇌에는 남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하는 ‘거울 신경세포’ (mirror neuron)라는 특수화된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럿이 대화를 하는 중에 누군가 자꾸 과자를 집어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과자를 먹게 됩니다. 대화하는 상대가 팔짱을 끼거나 하품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는 형제와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롯유다와 도마는 그런 관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가룟유다가 혼자 고민하다 배신자가 된 일들이 어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금 우리가 어울리는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의 소명과 일상적인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꿈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빌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나다나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해 주느냐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덕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상호 존중의 관계다.

빌립을 ‘만나’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 . .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두 종류의 상이한 만남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오므로 만나게 된 일입니다. 일단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3절과 45절.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라는 부분을 영어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decide**’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여정은 갈릴리를 향하고 있었고, 빌립은 갈릴리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튿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이튿날’과 35절의 ‘이튿날’, 그리고 43절의 ‘이튿날’은 상당히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혔고,

거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요단강 세레 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3-44절의 말씀을 보니,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벳새다 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곳이 베다니와 그리 멀지 않은 요단강 근처였던 것을 보면, 빌립을 만난 장소도 갈릴리 지역이 아닌, 그 길로 가려고 하시다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을 우리 말 성경에서는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finding’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got there’라고 쓰고 있습니다. 44절에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드레와 베드로를 벧새다가 아닌 유대 요단강 세레 터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아, 이들과 동행하고 있었던 동료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고, 그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 만나게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여정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한’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설명할 수 없는 ‘섭리’에 의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둘의 만남이 참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잠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5절.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만남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여정가운데 ‘발견된 사람’ 이었다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went and f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데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데는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분을 자신이 만났으니, 너도 가서 만나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나다나엘이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선지자들

의 글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이 주님을 단순하게 만나게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도 있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껄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근거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인 자기 경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장로교와 감리교를 구분 짓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빌립이던 나다나엘이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르심일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해 가시던 길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정말 무의미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의 순간순간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교리적인 논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어떤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인간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공식’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전에 삶을 보는 시각과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내 삶에 내려진 결정들이 제 삶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삶은 늘 내 맘대로 대지 않았고, 나는 늘 나의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은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고백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도 내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목사로 근무하는 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웬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삶의 길을 바꾸든지 결정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정했던 과거의 삶의 궤적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될 것 같은 순간 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은 과연 제 삶의 ‘의지’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지’냐? ‘예정’이냐?가 중요했는데, 주님을 고백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해 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한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일이 예정인가요? 의지인가요?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가아 보이지만, 죽는 순간 그들의 의지가 예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마지막에 자신의 의지로 주님께 영혼을 부탁한 그 강도는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마지막에 주님을 저주하고 죽은 그 강도는 죽는 순간 ‘그래 나는 이렇게 죽도록 되어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도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든 나다나엘이든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는 체험!

이제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핵심은 ‘자신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깨어진 나다나엘의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바돌로매’와 동일인 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바돌로매’라는 이름 대신 ‘나다나엘’이라 지칭하고 있는 점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등이 함께 있더니 (요한복음 21장/~2)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한 친구사이였다는 점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꼭 빌립과 바돌로매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친구 빌립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 보면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의 근거한 지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140여 가구에 불과한 나사렛에 비하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아니, 자기 확신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지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왜 아버지가 말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동안 말을 뒤집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늘 아버지는 마음에 확신이 오면 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었답니다. 조금 신중하면 좋을텐데. . .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반문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한 말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와 다른 마음과 확신을 주시면, 내가 물려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 아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 내 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때는 없는가?

그렇게 내 소신을 지키는 것이 지극한 교만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말을 뒤집을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내 말을 지키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확신에 근거한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교만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본문 47-48절 말씀.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 연구에 열중했던 나다나엘의 모습, 그의 과거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의 관심사를 알고 계셨던 주님,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야는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그 말에 나다나엘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그저 그럴 뿐입니다. 누구나 다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언젠가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나는 지난여름에 있었던 일을 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기사건이 있죠. ‘나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니 돈을 붙이시오’라는 협박 같은 것들 말이죠.

누군가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온 변화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봐야 나의 경험과 확신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말씀 50-51절을 보세요.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확신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 ‘시작 점’입니다.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하늘을 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나dana엘(바돌로매)는 브리기아, 헤라홀리스, 알메니아와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다대오와 함께 지금의 이란 지방을 전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가죽이 벗겨져 죽는 끔찍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우상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고 죽은 후 살갗을 벗기우고 시체는 자루에 넣고 묶이어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나dana엘의 사도로서의 상징은 더러는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지만 칼로 살갗을 벗기웠기 때문에 그의 상징은 항상 “세 자루의 칼”이었습니다. 이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가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목상의 사람 바돌로매- 나dana엘 - 요한복음 1:47-51|작성자 CYAN 물빛